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30분 7시
오전 (2부) 7시30분 10시
오후 (3부) 12시
오후 (4부) 2시
금요일예배 (1부)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예수중심교회

2013년 9월 22일 (제708호)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30분 7시
오전 (2부) 10시
오후 (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칼럼

그대들 덕분에

나는 28년 동안 눈 덮인 산야, 물 없는 사막을 걸어왔다. 힘들고 괴로웠다. 그런데 돌아보니 나 혼자만 아니었다. 우리 성도들도 내가 걸은 길을 함께 걸고 있었다. 우리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결혼이 깨지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가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마음이 아팠다. 자식 눈에서 눈물 나면 부

모의 가슴에서는 피눈물이 나는 법. 내가 핍박 받는 것보다, 내가 모함 받고, 수모당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아팠다. 그러나 나는 더는 울지 않기로 했다. 대신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할 뿐이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길을 가는 것은 누구 때문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기에 그렇다. 우리에게 인격 장애가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받는 능욕이요 고난이기에, 모든 것을 이기고 따라와 준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한다. 나는 그 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과 우

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천사를 앞에서 자랑할 것이다.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아온 자들'이라, '주님 때문에 생긴 상처들이 이렇게 많다'고 당당히 자랑할 것이다. 또한 우리 성도들도 나를 자랑해주리라 믿는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옳게 살아온 나를 자랑해주리라.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주님이 오시는 날,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누구보다 반갑게 맞아주시고, 우리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리라.

10월 1일, 잠실실내체육관집회가 예정

되어 있다. 늘 그래왔듯이 이번 집회에도 체육관이 차고 넘쳐도록 채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만민에게 보여주자.

우리는 하나요, 동지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인 동지다. 처음은 누구나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함께 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 마지막까지 함께 가는 천국 동지가 되자.

나는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글을 위의 시(詩)에 담아보았다. 사랑하는 마음이야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의 사랑을 몇 줄의 시에 실는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눅4:25~30)



반복이란 성장촉진제다

‘불을 계속 때면 무쇠도 녹는다.’, ‘열 번 짝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 말은 반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반복 안에 성공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먼저, 반복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점령한 성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몇 세 동안은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며 나팔을 불고 고함을 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매일 한 바퀴씩 옛새를 돌고 이레째는 일곱 바퀴를 돌라고 하셨을까 많이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생각이나 지식, 이론을 빼내기 위한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명받은 대로 여리고성을 옛새 돌고, 이레째에 일곱 바퀴 돌라고 했을 때 그들 중에 대다수는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아니, 그러다고 저 성이 무너지나?”, “올라가서 쳐부수아지, 여리고성이 모래성인가?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게?” 등등 인간적인 생각, 인간의 지식과 이론을 들어대며 다들 말도 안 된다고 투덜거렸을 겁니다. 지도자가 시키니까 돌기는 돌지만 이 성이 무너질 것이냐는 생각은 누구도 안했을 겁니다. 이레째에 무너질 거면 옛새째에는 성에 금이라도 가야할 판인데 여전히 꿈쩍도 않는 여리고 성을 보고 그들은 여전히 하

아만 장군은 버럭 화를 냅니다. 그러나 몸종의 권면에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담급니다. 그러자 몸이 어린 아이 살처럼 깨끗해졌습니다(왕하5:1~14).

왜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일곱 번 들어가 씻으라고 했을까요? 같은 맥락입니다. 엘리사의 말에 화를 낸 나아만 장군이 처음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화가 가라앉았겠습니까? 두 번, 세 번 들어가면서 ‘내가 미친 짓하고 있지’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섯, 일곱 번 들어가면서는 ‘이왕 들어왔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진정 참 신

이라면 나를 치료하소서’ 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

는 게 아니라 ‘아멘’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대 사도 바울은 그가 터득한 최고의 학문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 하며 주를 따라간 것입니다(빌3:8).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말고 오직 ‘예’ 합시다.

둘째, 반복해야 소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사환에게 일곱 번 바다 편을 바라보라며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비를 구한 엘리야(왕상18:42~46), 거둬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과부(눅18:1~7), 거둬 예수

를 부른 소경 바디매오(막10:46~52), 벧에게 떡 세 덩이를 빌리기 위해 거둬 문을 두드린 친구(눅11:5~8), 이들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공통적으로 한 것은 반복이었습니다.



에게 일곱 번 요단 강에 들어가라 한 것은 한 번에 고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이론과 생각을 과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사와 기적은 인간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지식이나 이론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높은 담이 되어 하나님과 남남을 만들 뿐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고후10:4~5).

그분의 생각은 우리보다 크시며 높습니다(사55:8~9).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순종뿐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요? 당연히 안 되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행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저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연구한 신학자가 복을 받

는 게 아니라 ‘아멘’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대 사도 바울은 그가 터득한 최고의 학문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 하며 주를 따라간 것입니다(빌3:8).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말고 오직 ‘예’ 합시다.

둘째, 반복해야 소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사환에게 일곱 번 바다 편을 바라보라며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비를 구한 엘리야(왕상18:42~46), 거둬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과부(눅18:1~7), 거둬 예수

를 부른 소경 바디매오(막10:46~52), 벧에게 떡 세 덩이를 빌리기 위해 거둬 문을 두드린 친구(눅11:5~8), 이들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공통적으로 한 것은 반복이었습니다.

경은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지 아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지 아니 찾는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눅11:9~10). 이 말씀은 ‘거둬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반복해서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계속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응답을 얻지 못하는 아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는 구하지 아니함이요”이란 말씀대로 얻을 때까지 거듭 반복적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취직 시켜주세요.”, “배필 주세요.”... 이렇게 거듭, 반복적으로 구하면 왜 안 주시겠습니까?

셋째,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어떤 일에든 반복해서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능력위주의 시대입니다. 능력이 됩니까? 어떤 분야에 뛰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능숙해져

야 합니다. 눈 감고도 똑딱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물맷돌로 이긴 것은 매일 반복적으로 물맷돌을 던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삼상17). 세계 제일의 피겨스케이터 김연아 선수를 보십시오. 그녀도 끊임없이 반복에 반복 연습을 하여 오늘의 자리에 오른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 큰 바위를 뚫는다

것입니다. 세계적인 골퍼 타이거우즈도 하루에 1,000개 이상의 공을 친다고 합니다. 그가 “하루 연습을 게을리 하면 내가 알고, 이들을 게을리 하면 캐디가 알고, 사흘을 게을리 하면 온 세계가 안다.”고 말한 것을 잘 생각해 바랍니다. 반복이 달인을 낳습니다. 반복이 범인(凡人)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공하고 싶습니까? 능력자가 되길 원합니까? 반복에 반복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미용사가 되길 원하는 분들이라면 머리를 자르고 파마 마는 것을 반복하십시오. 최고의 요리사가 되길 원하면 칼질부터 반복하여 연습하고, 한류 스타가 되길 원하면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를 반복 연습하여 몸에 완전히 익을 때까지 노력하십시오. 영어를 잘 하는 방법도, 모든 운동도 잘 하는 방법은 오직 반복 연습뿐입니다.

더욱이 주의 종으로 성공하려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라”(행6:4)는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제가 귀신을 잘 쫓는 것은 매일 반복적으로 쫓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도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세 살 때에는 완전히 여지리라”(눅13:32) 하시지 않았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 늘 성경을 상고하라(요5:39)는 말씀처럼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반복하여 최고의 능력을 갖추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여 영·혼·육에 성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나눔의 말씀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바퀴만 돌면 성이 무너지는 이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돈 것이 아까워서도, 아니 꼭 이 성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옛새와는 다르게 전능하신 여호와를 애대해 부르며 성을 돌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소리를 지를 때 그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포로로 잡혀 온 여종으로부터 사마리아 선지자가 문둥병을 고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아람 왕의 소개장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방문합니다(왕하5:2~6). 나아만 장군을 맞은 이스라엘 왕은 이를 정치적 의도를 가진 방문으로 여겨 웃을 찢으며 격정을 합니다. 이런 내막을 들은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사자를 보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라고 합니다. 이 말에 나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060)700-0633

(060)700-02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악하면 죽는다

‘악한 것은 왜 악한 것보다 못하다’고 말 할까? 그 대답은 늘 우리주변에 널려 있다. 나는 어느 날, 악한 것이 악한 것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나는 그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악한 것도 서러운데 악한 것보다 못하다니’, 이 무슨 터무니없는 말인가!

그런데 그 뜻을 풀어보면 이런 것이다. 우주의 원동력은 강함이다. 사회의 원동력 또한 강함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야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력이 약하면 자신을 망치고 가정도 망치게 된다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강함이란 나의 불행한 삶을 물리치는 면역력이다. 내게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전신성 류마티스에 걸려, 누운 자리에서 대소변 받아가며 조금도 움직일 수 없던 시절이 있었다. 그 때 나는 늘 ‘아이고 힘 들어 죽겠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왜 안 그랬겠는가? 전신에 퍼지는 통증으로 인하여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나 다시금 내가 살겠노라는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저 좀 기억해주시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여 기도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의 그 ‘스스로 돕는 자’ 역시 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강하지 않고는 스스로 도울 수가 없다. 스스로 그곳에서 나오려고 발버둥치지 않는다.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 내가 류마티스에 걸렸을 때 내 자신이 일어나려고 몸부림쳤던 것, 그것이 곧 스스로 돕는 행위였고, 내가 강한 사람이었던 것

이다. 내가 살고 싶어서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씀을 부여잡고 일어섰을 때, 주님께서 “네가 무엇을 하여주길 원하느냐?”고 물으셨다. 나는 “저는 살고 싶습니다. 견고 싶습니다.”라고 분명히 나의 소망과 목표를 이야기하여 응답을 받았다. 내가 좌절하여 정정대고 운다고 해결될 일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믿음, 곧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은 나의 강한 모습을 보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를 때,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소경이라고 그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셨다. 앞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의 강함을 보시기 위해서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무조건 소리 나는 쪽으로 달려 나갔다. 조심스레 더듬거린 것이 아니라 뚝 뚝이었다. 이런 강함이 그를 고쳤다.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수1:1).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영혼에 새기고 영적으로 무장한 강한 자가 되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기를 바란다.

김영숙

jesus_sook@naver.com

타협하지 말라

나그네가 깊은 산길을 걸다 밤을 맞았다.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모두들 만류한다. 산에 호랑이가 있어 밤길에 변을 당하기 십상이라는 거다. 그러나 길은 멀고 시간은 화급을 다투니 나그네는 잠시라도 지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만류를 뿌리치고 밤길을 나섰다. 사위는 고요한데 금세 뭐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머리가 쭈뼛쭈뼛 쏜다. 산마루 정상 가까이 되었을까? 정말 그 무시무시한 호랑이가 나그네를 막아서며 나타나고 말았다. 그런데 ‘이젠 죽었구나!’ 하고 눈을 감는 나그네에게 호랑이가 말한다. “네 팔뚝 하나 내놓으면 안 잡아먹지.” 생각해보니 죽는 것보단 그게 나을 성 있어 팔뚝 하나를 내주었다. 그런데 좀 지나니 다시 그 호랑이가 나타나 말한다. “다리 한 짝 주면 안 잡아먹지.” 고통을 참으며 그래도 살아야 하기에 다리 한 짝마저 내주고 말았다. 그런데 급기야 다시 나타난 호랑이는 그 나그네를 잡아먹고 말았다.

참으로 허망한 죽음이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악과 타협한 결과다. 죽고자 하면 산다. 그런데 두려움에 죄와 하나씩 타협하며 자신을 합리화하다가 결국엔 사지가 잘려나가고,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 그 때는 완전히 마귀의 로봇이 되어 죄악으로부터 헤어나라야 헤어날 수 없다. 결국 사망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두려움을 주는 자 앞에 강하고 담대히 맞서라. 초전박살만이 살 길이다. 생각의 틀을 타고 죄가 허를 날름거릴 때, 즉시로 초전에 박살을 내는 자제만이 승리하는 길이다. 거기에 무슨 전략이 있고 대처방안이 따로 있겠는가! 뱀이 들어왔으면 속히 작대기로 두들겨 잡는 것이 장땡이다. 타협하지 말라. 다른 길은 없다. 진리의 좁은 길을 인내하며 걸어가는 자만이 마침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

예수중심편집실



::성경에세이::



귀를 기울이세요

좋아하는 일을 해라

여보게!

나는 “다시 태어나는 세상이 있어도 목사한다.”는 말을 자주 하네. 윤호철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목사라는 일을 내가 가장 좋아하기 때문이라네. 그런 걸 사람들은 천직(天職)이라고 말할지. 정말 내게는 이게 천직일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과 잘 하는 일 가운데서 방향하지. 이 둘이 같은 것이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겠지만, 아닌 경우가 대다수니 어느 것을 좇아야 할지 몰라서 그러는 게야. 그런 경우 어찌해야 할까?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르겠지만, 나는 꼭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권하고 싶네.

잘하는 일이 능력이고 재능이라면, 좋아하는 일은 적성이지. 아무리 잘하는 일이라고 해도 그게 내 적성에 맞지 않으면 일단 일이 지겨워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걸세. 워렌 버핏도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돈이 아니라 당신이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러면 돈은 저절로 들어온다.”라고 말했네. 그가 성공한 것은 좋아하는 일을 기쁨으로 했기 때문 아닐까?

아무리 잘하는 일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춘향이 되고 말거든, 그래서 인생이 재미없고 힘들고, 고달픈 것이 아니겠나!

세계 최대 석유회사인 미국 스탠다드 회사의 아치볼드라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았나? 그는 비록 석유 판매 사원이었지만 자기 일을 즐겼네. 좋아하는 거지. 오죽하면 호텔에서 숙박등록을 할 때도 자기 이름대신 ‘한통에 4달러, 스탠다드 석유’라고 회사의 이름과 석유가격을 쓸 정도였나. 그리고 누구와 대화를 할 때도 먼저 ‘한통에 4달러, 스탠다드 석유’라고 인사를 한 다음에 용건을 말했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한통에 4달러, 스탠다드 석유’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지. 이 말이 사람을 타고 사장이 된 록펠러의 귀에 들어갔나. 록펠러는 그를 불렀지.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아치볼드의 깊은 애사를 확인하고, 그가 회사를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록펠러는 알게 되었지. 록펠러는 아치볼드가말로 자기 회사에 없었던 안 될 인물이라고 점을 찌고, 훗날 아치볼드에게 사장직을 넘겼네.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뿐이었는데 좋은 결과를 낳은 거지.

여보게!

그럼 자네는 내게 이렇게 묻겠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는데, 잘하지 못한다고. 자네 질문에 내 답은 이걸세. 좋아하는 일을 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그건 잘하게 되는 방법이 있네.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노력할 수 있다고. 노력하는 것이 절대 힘들지 않기 때문에 더욱 노력하게 돼서 잘 하게 된다고. 잘하는 일이지만 지겹게 느끼는 것과 지금은 잘못하지만 즐거운 일이라 노력해서 잘 하게 되는 것과 어느 것이 낫겠는가? 후자는 자율성이 더해지는 것인데 말일세.

논어에 보면 지지자(知之者)는 불여호지자(不如好之者)요, 호지자(好之者)는 불여락지자(不如樂之者)라고 했네. 아는 것은 좋아하지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지.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잘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오늘 자네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운지 한 번 생각해 보게나.

朋友

2500년 전 춘추전국시대에 성공이라는 초나라 제후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중국 대륙은 각 나라들 간의 국경도 분명하지 않았고, 국적에 대한 제도도 모호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제각기 살기 좋은 나라로 이주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성공 또한 백성들이 날마다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것이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초조해진 그가 공자를 불러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나라에 정착해 사는 백성들이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천리장성이라도 쌓아서 막아야 하는 걸까요?” 잠시 생각하던 공자는 다음과 같이 짧게 대답하고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근자열 원자(近者悅 遠者來)”. 이 말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도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쁘고 친한 사람일수록 편하게 하고 격의 없이 자넵니다. 가족이나 친척들 간에는 더욱 그렇지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친분이 두텁게 형성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친분이 과한 나머지 서로에게 함부로 대하여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잘하고 선을 베풀 때, 나와 먼 사람도 그런 내 모습을 보고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가만 타 사람은 가만함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재식 전도사

blessednrc@naver.com

::내가 매일 기쁘게::

결과 속이 다른 사람

초등학교 시절, 공부에 관심이 없었던 나는 선생님께 칭찬을 듣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고, 한 학기가 채 되기 전에 반에서 4등을 하게 되었다. 선생님께 사랑받고 싶어서 청소도 더 열심히 하고, 숙제도 더 열심히 하였다. 그 선생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 그래서 나는 선생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했었다.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선생님을 정말 좋아하는 건 아니었음을 알게 된 날이 있었다. 청소시간이었다. 선생님이 교무회의로 자리를 비운 사이, 선생님께 예쁜 것만 골라하던 아이가 선생님의 흉을 보는 것이었다. 한참을 그러던 그 아이는 선생님이 오시는 순간에 돌변하여 결례질을 하며 다시 착한 아이가 되었다. 충격에 가까웠던 그 친구의 모습은 지금도 여전히 곳곳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자신의 진심과는 전혀 다른 말을 내뱉으며 대인관계를 형성해나가는 사람이 정말 너무도 많다.

개개인의 인성도 문제일 수 있지만, 세태가 사람들로 하여금 더 그렇게 만들고 있다. 솔직한 감정표현은 미덕이 되지 못하고, 좋아도 그저 그런 척, 싫어도 좋은 척 하는 것이 매너가 돼버린 세상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마음에도 없는 말을 떠벌이다가 자신에게 이용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면 쉽게 돌아서는 것이다. 이러한 풍조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그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오디션 프로의 심사위원들이 지원자들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사항은 실력보다 진정한 담긴 모습이다. 심사위원들의 요구사항은 TV 시청자들이 원하는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 간절한 마음을 담아 노래를 부르고, 연기를 하고, 춤을 추는 지원자들이 우승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것은 지원자들에게 문자 투표를 하며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장르 불문 진정한 것은 모습을 상업화시키는 TV프로를 통해 지금 이 사회는

진정성보다 결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결과 속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 할까? 예수님은 결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셨다(마23:13-38). 결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회칠한 무덤'이라고도 비유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더러운 속내를 속히 버릴 것을 강요하셨다. 이것은 '큰 자가 되기 전에 먼저 깨끗한 자가 되자'는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과도 연결된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진정성이 결여되어 결과 속이 다르다고 우리도 그들을 따라 가면 안 된다. 주님의 자녀로써,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깨끗한 자'가 되어 결과 속이 한결 같은 참된 신앙인의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전훈지

ppjee@hanmail.net

Good News

프랑스의 인생 평론가 라브뤼에르는 그의 저서 '인간의 탐구'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이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증명이 불가능하기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불신자들이 자주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설명해주면 믿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불신이 가득한 인간 세상에서는 무엇이든 확인해 보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에는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영양제를 먹을 때 성분을 일일이 다 확인한 후에 먹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약사의 말을 믿고 먹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타고 적을 물리친 것을 보지 못했어도 역사책을 보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나가는 바람이나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산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느낌으로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약사의 말을 듣고 영양제를 먹었더니 육체에 건강이 찾아오고, 바람이 불어올 때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불변하는 진리는 연구나 탐색이나 추리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좁은 지식 안에 광대한 하나님을 가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지체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셔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Q&A

Q: 산상집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데 목사님께서 "회개하며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으신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특별히 회개할 것이 생각나지 않았습니 다. 어떻게 하면 지도 뜨겁게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A: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의아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큰 대역죄를 지었기에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날마다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까(요일1:9).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도덕적으로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면 우리 모두는 형편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한 것, 남을 미워한 것,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지 못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겸허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일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픔속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밝은 빛 아래 드러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뜨겁게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방언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도와주실 것입니다(요16:8).



이초석 목사 잠실실내체육관 집회
10월 1일(화) 저녁 8시
02-533-9191, 1600-0688